

주요 요약구절인 사도행전 9:31의 번역

정창욱*

1. 문제 제기

사도행전 9:31은 그 전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는 ‘요약구절’로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¹⁾ 그런데 다른 요약구절들보다 이 구절의 요약 내용은 더 큰 중요성을 갖는다. 왜냐하면 초대 교회사의 최대 주요 사건 중 하나인 이방인 전도자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과 복음 확장에 있어 획기적인 사건인 순수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 사건 사이에 위치해 있으면서, 바울의 회심 사건 결과 생겨난 교회의 모습을 그려 주고, 순수 이방인 전도를 향해 가기 전의 교회의 모습을 묘사해 주기 때문이다.²⁾ 이 구절의 그리스어 원문과 『개역개정』의 번역은 다음과 같다.

* Vrije Universiteit Amsterdam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총신대학교 신학과 교수. cwjung21@gmail.com.

- 1) 행 6:7이 9:31과 유사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 대표적인 요약구절이라 할 수 있다. 바렛(C. K. Barrett)은 그 이전에도 2:42-47; 4:32-35; 5:12-16 등에서도 요약구절이 등장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구절들에서는 요약의 내용이 다소 길게 나열되어 있다. C. K. Barrett, *The Acts of the Apostles v.1: Acts 1-14* (London; New York: T.&T. Clark, 1994), 472. 키너(C. S. Keener)는 9:31과 유사한 방식의 요약구절이 이 구절 이후에도 여러 번 쓰인다고 지적한다(12:24; 16:5; 19:20; 28:31). 이런 방식으로 그 전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은 그 당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C. S. Keener, *Acts: An Exegetical Commentary 3:1-14:28* (Grand Rapids: Baker, 2013), 1228.
- 2) 이 구절이 앞의 내용을 정리하고 뒤에 펼쳐질 내용으로 전이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 학자들은 동의한다. R. I. Pervo, *Acts* (Minneapolis: Fortress, 2008), 248; D. G. Peterson, *The Acts of the Apostles* (Grand Rapids: Eerdmans, 2009), 318. 이런 까닭에 『개역개정』이 이 구절을 독립적으로 떼어 놓았을 것이다. 바렛도 이 구절은 독립적으로 위치해 있다고 인정한다. C. K. Barrett, *Acts 1-14*, 472. 네스틀레-알란트(Nestle-Aland) 그리스어 성경은 이 구절을 새로운 단락의 시작으로 설정하여 이 구절이 그 전의 내용을 요약해주면서도 그보다 더 다음에 펼쳐질 내용을 소개하는 역할을 한다고 제시한다.

Ἡ μὲν οὖν ἐκκλησία καθ' ὅλης τῆς Ἰουδαίας καὶ Γαλιλαίας καὶ Σαμαρείας εἶχεν εἰρήνην οἰκοδομουμένη καὶ πορευομένη τῷ φόβῳ τοῦ κυρίου καὶ τῇ παρακλήσει τοῦ ἁγίου πνεύματος ἐπληθύνετο.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구절은 교회의 확장과 성장의 비결을 제시해 주며, 그렇게 생생하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의 형성과 작동 원리를 설명해 준다.³⁾ 게다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역사를 구체적으로 그려 주며, 중요한 신학적 개념들 — 평안/평화, (주님의) 경외/두려움,⁴⁾ (성령의) 위로 — 이 등장한다.⁵⁾ 이와 같이 교회의 성장과 생명력을 위해 있어야만 하는 구성 요소들이 적시되어 있어서 그것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생명력 있는 교회의 요소를 드러나게 해 주며 초기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날 바람직한 교회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 그와 더불어 이 구절의 원문의 문장 구조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법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리스어 원문 연구의 중요성을 드러내 준다. 따라서 이 구절에 대해서 자세하게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먼저 그리스어 구문과 관련하여 제시되는 다양한 번역들을 살펴보고 쟁점들을 밝혀 보고 원문 연구를 통하여 그것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2. 다양한 번역들

그리스어 구문 이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눈에 띄는 점은 두 개의 주동사, 곧 εἶχεν과 ἐπληθύνετο로 구성되어 있는 문장들을 어떻게 분석하여 조합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⁶⁾ 주요 논점은 두 개의 분사 οἰκοδομουμένη와

3) ‘세워져가고’에 해당하는 단어의 의미와 관련하여 키너는 이런 의미를 제시하면서도 영적/수적 성장을 이 단어가 의미할 수도 있음을 지적한다. C. S. Keener, *Acts*, 1696. 하지만, 이 단어뿐만 아니라, 이 구절의 전체적 내용이 역동적 교회의 모습을 그려 준다.

4) τῷ φόβῳ τοῦ κυρίου의 번역은 생각보다 복잡하여 편의상 직역을 해 놓았으며, 이 표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아래에서 이루어진다.

5) 비록 ‘주님’과 ‘성령’이라는 단어만이 등장하지만 ‘주님’이 사도행전에서 종종 ‘하나님’과 ‘예수님’ 둘 다를 의미할 수 있으므로 삼위일체적 존재의 교회를 향한 간섭을 그려준다고 설명할 수 있다. 마샬(I. H. Marshall)은 여기서 ‘주님’이 하나님을 지칭한다고 보는 반면에 바렛은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I. H. Marshall, *Acts* (Grand Rapids: Eerdmans, 1992), 177; C. K. Barrett, *Acts 1-14*, 474.

6) 파슨스(M. C. Parsons)와 컬리(M. M. Culy)는 첫 번째 분사가 두 개의 주동사 중에서 어느 주동사와 연결되는지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M. C. Parsons and M. M. Culy, *Acts: A Handbook on the Greek Text* (Waco: Baylor University Press, 2003), 184.

πορευομένη를 어느 부분과 연결시킬 것인지에 맞추어진다.⁷⁾ 이와 관련하여 한글 성경은 위에서 제시한 『개역개정』은 물론 다른 모든 성경들도 예외 없이 ‘튼튼히 서가다’에 해당하는 첫 번째 분사를 그 앞의 첫 번째 주동사인 εἶχεν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 두 번째 분사는 두 번째 동사 ἐπληθύνετο와 연결하여 해석한다.⁸⁾ 이때에 『새번역』을 제외한 다른 한글 성경들은 첫 번째 분사를 첫 번째 동사의 결과처럼 이해한다.⁹⁾

그 반면에 영어 성경은 다양한 견해를 드러낸다. 물론, 다수의 영어 성경은 한글 성경처럼 첫 번째 분사 οἰκοδομουμένη를 첫 번째 주동사인 εἶχεν과 연결시켜 해석하고 두 번째 분사 πορευομένη는 두 번째 동사인 ἐπληθύνετο와 연결하여 이해한다. 대표적으로 ESV를 들 수 있다.¹⁰⁾

So the church throughout all Judea and Galilee and Samaria had peace and was being built up. And walking in the fear of the Lord¹¹⁾ and in the comfort of the Holy Spirit, it multiplied.

반면에 NIV는 이러한 이해와는 약간 다른 번역을 제시한다.

Then the church throughout Judea, Galilee and Samaria enjoyed a time of peace. It was strengthened; and encouraged by the Holy Spirit, it grew in numbers, living in the fear of the Lord.

7) R. I. Pervo, *Acts*, 248. 그는 두 개의 단어 곧 ‘경외’와 ‘위로’가 두 개의 분사와 어떻게 상호 관계하는지 분명치 않다고 지적한다.

8) 모든 한글 성경이라 함은 『개역한글』, 『개역개정』, 『표준』, 『새번역』, 『공동』, 『공동개정』 그리고 2005년에 가톨릭에서 번역한 『성경』을 가리킨다. 『개역개정』의 번역은 본문에서 제시하였으므로, 각 번역의 최신판인 『새번역』과 『공동개정』, 그리고 『성경』의 번역을 표기하면 아래와 같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 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새번역』)

그러는 동안 유대와 갈릴래아와 사마리아 온 지방에 들어선 교회는 안정이 되어 터전을 튼튼히 잡았고 주를 두려워하며 성령의 격려를 받아 그 수효가 차츰 늘어났다. (『공동개정』)

이제 교회는 유대와 갈릴래아와 사마리아 온 지방에서 평화를 누리며 굳건히 세워지고,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서 성령의 격려를 받아 그 수가 늘어났다. (『성경』)

9) 벡(D. L. Bock)은 첫 번째 분사가 결과를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had peace and thus was strengthened.’ D. L. Bock, *Acts* (Grand Rapids: Baker, 2007), 373. 하지만 그는 번역에서 본문을 다르게 이해한다: So the church ... peace. Being built up and proceeding in the fear of the Lord and in the comfort of the Holy Spirit, it was being multiplied.

10) 이외에도 BBE, KJV, NAS, NAU, NET 등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원문을 번역하고 있다.

11) ‘walking in the fear of the Lord’라는 표현은 제2성전기 문헌에서 토라의 준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 H. Le Cornu and J. Shulam, *A Commentary on the Jewish Roots of Acts* (Jerusalem: Netivyah Bible Instruction Ministry, 2003), 526.

NIV는 첫 번째 분사를 주동사처럼 번역하고는 첫 번째 문장에 속한 것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두 번째 문장과 연결된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면서도 그 이후의 후반부도 첫 번째 분사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려고 세미 콜론을 찍는다. 이것은 이 구절의 구문 분석이 문법적으로 명쾌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NIV의 해석은 흥미롭다. 의미가 잘 통하도록 원문의 구문을 무시하고 의역하면서 ‘주님의 두려움’(the fear of the Lord)과 ‘성령의 위로/격려’를 따로 떼어 내어 보기에 따라서는 성령의 위로/격려를 교회 성장의 직접적 요인으로 해석하고 주님의 두려움은 성장의 직접적 요인이 아닌 것으로 해석한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¹²⁾

NJB의 번역은 더욱 분명하게 이런 개념을 드러낸다.

The churches¹³⁾ throughout Judaea, Galilee and Samaria were now left in peace, building themselves up and living in the fear of the Lord; encouraged by the Holy Spirit, they continued to grow.

이 번역에서 두 개의 분사 모두 아예 앞의 주동사와 묶여 버리며, 이 분사들이 ‘성령의 위로/훈계’가 아니라 ‘주님의 두려움’하고만 연결된다. 이와 같이 ‘성령의 위로/훈계’와 ‘주님의 두려움’은 별개로 분리되어 이해된다. 교회의 성장은 성령의 격려하심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진다.¹⁴⁾

각 성경의 번역에 따라서는 교회 성장의 직접적 원인으로서 주님을 두려

12) 피터슨(D. G. Peterson)은 교회의 성장이 성령의 격려로 이루어진다고 분명하게 언급한다.

D. G. Peterson, *Acts*, 318. 또한 L. T. Johnson, *Acts* (Collegeville: Liturgical, 1992), 177을 보라.

13) 원문에서 ‘교회들’에 해당하는 단어는 단수로 되어있으나, 의미상 복수가 자연스러워서 복수로 표현한 것으로 여겨진다. 사실 이 명사의 단수의 사용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며 그래서 어떤 사본들에서 이 단어는 복수로 되어 있고 동사도 복수로 변형되어 있다. 특별히 ‘갈릴리’라는 지명도 관심을 끄는데, 사도행전에서 갈릴리에서의 복음 전파 사역의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수님의 고향 지역이며 주된 사역지였던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부활 후에 복음 전파 사역이 있었으리라고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다. 이 주제에 대한 자세한 연구를 위해서는 다음의 두 책을 참조하라: J. Rius-Camps and J. Read-Heimerdinger, *The Message of Acts in Codex Bezae: A Comparison with the Alexandrian Tradition* (London; New York: T. & T Clark, 2007), 207-209; Keener, *Acts*, 1697-1701.

14) NLT의 번역은 NJB와 약간 다르면서도 마지막 부분의 이해는 유사하다:

The church then had peace throughout Judea, Galilee, and Samaria, and it became stronger as the believers lived in the fear of the Lord. And with the encouragement of the Holy Spirit, it also grew in numbers.

첫 번째 분사를 주동사처럼 번역하고서는 두 번째 분사의 내용이 마치 첫 번째 분사의 내용의 근거인 것처럼 이해한다. ‘성도들이 주님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감에 따라 교회가 더 강해져 갔다.’ 여기서도 ‘주님의 두려움’과 ‘성령의 위로’를 따로 떼어서 이해했다.

위하는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배제되어 버린다. 성령의 위로가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두드러지게 부각되면서 주님의 두려움은 교회의 성장을 위한 결정적 요인으로 설 자리를 잃는다.¹⁵⁾

이러한 영어 성경의 경향과 유사하게 독일어 성경도 다양한 해석을 제시한다. EIN은 두 개의 분사를 앞 문장과 연결된 것으로 보면서 그 두 개를 하나로 엮어 놓으며 ‘평화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두 개의 분사가 표현해 준다고 이해한다.

Die Kirche in ganz Judäa, Galiläa und Samarien hatte nun Frieden; sie wurde gefestigt und lebte in der Furcht vor dem Herrn. Und sie wuchs durch die Hilfe des Heiligen Geistes.

이 번역에서도 ‘주님의 두려움’과 ‘성령의 위로’는 서로 분리되며, ‘주님의 두려움’은 교회 성장의 직접적 요인이 되지 못하고 평화를 소유하고 있는 모습과 관련있는 것으로 묘사하며, 성령의 도움으로 교회는 성장한다는 의미를 전달한다.

ELB(Elberfelder Bibel)는 두 개의 분사 구를 두 개의 주동사와 동일하게 동사로 이해하여 네 개의 문장으로 만들었으며, 반면에 MNT(Münchener Neues Testament)는 두 개의 분사를 함께 이해하면서 이것들이 앞의 주동사와 연결된다고 해석하고는, ‘성령의 위로’를 통하여 교회가 성장한 것으로 묘사한다.¹⁶⁾ ZUR(Zürcher Bibel)도 비슷한 이해를 반영하여 세미콜론을 사용하여 문장을 세 부분으로 나누며 이때에 두 개의 분사를 한 부분으로 묶

15) CEV의 번역이 이런 점을 극명하게 드러내 준다:

The church in Judea, Galilee, and Samaria now had a time of peace and kept on worshipping the Lord. The church became stronger, as the Holy Spirit encouraged it and helped it grow.

이 번역에서 교회의 강성해짐은 성령의 용기 주심과 자라게 하심에 의해 가능한 것으로 그려져서 교회 성장에 있어 성령의 역할이 강조된다. 주님의 경외/두려움은 교회 성장의 요인에서 사라져버리고 단순히 ‘주님을 예배하는 것’(worshipping the Lord)만 남으며, 그나마도 교회 성장과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16) ELB와 MNT의 번역은 아래와 같다.

So hatte denn die Gemeinde durch ganz Judäa und Galiläa und Samaria hin Frieden und wurde erbaut und wandelte in der Furcht des Herrn und mehrte sich durch den Trost des Heiligen Geistes. (ELB)

Die Gemeinde aber nun in der ganzen Judaia und Galilaia und Samareia hatte Frieden, erbaut werdend und gehend in der Furcht des Herrn, und sie wurde durch die Ermutigung des heiligen Geistes vermehrt. (MNT)

어서 이해한다.¹⁷⁾ 결국 평화를 소유하고 있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그 뒤의 부분은 설명해 준다고 번역해 놓았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독일어 성경에서도 ‘주님의 두려움’과 ‘성령의 위로’를 분리해서 이해하며 ‘성령의 위로’가 교회 성장의 동력이라고 번역해 놓았다. 흥미롭게도 어떠한 독일어 성경도 모든 한글 성경과 다수의 영어 성경이 한 것처럼 첫 번째 분사를 첫 번째 동사와 연결하고 두 번째 분사를 두 번째 동사와 묶어서 번역하지 않으며, 두 개의 여격 구를 하나로 묶지 않고 따로 떼어서 별개의 것으로 번역한다.

이러한 전체 문장의 구조와 더불어 몇 가지 쟁점을 사도행전 9:31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핵심적인 두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¹⁸⁾

1) 그리스어 단어 παρακλήσις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한글 성경은 모두 ‘위로’로 번역했고 영어 성경도 ‘위로’나 ‘격려’를 의미하는 ‘comfort’나 ‘encouragement’로 해석했으며, 독일어 성경도 ‘위로’나 ‘격려’를 의미하는 ‘Trost’나 ‘Ermutigung’으로 번역한다. 하지만 이 명사의 의미 파악은 생각보다 복잡하다.¹⁹⁾ 논점은 이 단어를 ‘권면/훈계’로 번역할 수 있느냐에 맞추어진다.

2) 서로 한 쌍을 이룬다고 할 수 있는 τῷ φόβῳ τοῦ κυρίου(주님의 두려움)와 τῇ παρακλήσει τοῦ ἁγίου πνεύματος(성령의 위로/권면)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구문의 올바른 이해가 요청된다. 『개역개정』처럼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라고 번역할 수도 있으나 그럴 경우에 두 표현이 완벽한 한 쌍을 이룬다고 보기 어렵다. 이 두 표현의 기본적 의미는 ‘주님의 두려움’과 ‘성령의 위로/권면’이며, 이때 소유격은 주어적 소유격(subjective genitive)이나 목적어적 소유격(objective genitive)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둘 사이의 관계

17) Zur의 번역은 다음과 같다.

Die Kirche hatte nun Frieden in ganz Judäa und Galiläa und Samaria; sie wurde aufgebaut und ging ihren Weg in der Furcht des Herrn; und sie wuchs durch den Beistand des heiligen Geistes. (ZUR)

18) 연결사 두 개가 합쳐져 있는 μὲν οὖν의 번역도 관심을 끌 수 있으나 이 구절에서 ‘그리하여’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기에 논점을 좁히기 위해서 이것에 대한 논의는 생략한다. 또한 두 번째 동사 ἐπληθύνετο의 의미도 주목을 받곤 하는데, 양적이며 질적인 측면에서 ‘성장하다’라는 의미를 전달한다고 정리해 볼 수 있다. 덧붙여서, ‘평화’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단어가 단순히 평온하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지도 논점이 될 수 있으나, 이 문맥에서 핍박의 소강상태로 주어진 평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에 논의에서 제외한다.

19) 바렛은 이 명사의 의미가 불분명하다고 언급한다. C. K. Barrett, *Acts*, 474.

속에서 이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과 같은 사안들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여 사도행전 9:31의 가장 적합한 의미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바람직한 번역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쟁점 연구

3.1. 두 개의 분사와 주동사의 상관 관계

3.1.1. 기본적 문장 구조

앞서 살펴본 대로 전체적인 구문 분석과 관련하여 모든 한글 성경과 많은 영어 성경은 첫 번째 분사까지 한 문장으로 보고, 그 뒤를 두 번째 문장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두 개의 여격 구를 모든 한글 성경은 하나로 묶어서 보며, 영어 성경은 하나로 보기도 하고 따로 떼어 이해하기도 한다. 이 구절의 그리스어 문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리스어 구문을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간결하게 분석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Ἡ μὲν οὖν ἐκκλησία καθ' ὅλης τῆς Ἰουδαίας καὶ Γαλιλαίας καὶ Σαμαρείας
εἶχεν εἰρήνην οἰκοδομουμένη καὶ
πορευομένη
τῷ φόβῳ τοῦ κυρίου καὶ
τῇ παρακλήσει τοῦ ἁγίου πνεύματος
ἐπληθύνετο.

언뜻 보기에, 문장 구조상으로 단순하고 문장의 균형을 맞추는 이해는 첫 번째 분사 οἰκοδομουμένη를 첫 번째 동사 εἶχεν과 함께 묶고, 두 번째 분사 πορευομένη를 두 번째 동사 ἐπληθύνετο와 연결하는 것이다. 이때 두 개의 여격 명사구도 하나로 묶어서 두 번째 분사와 연결하여 이해하게 된다. 이것이 아마도 모든 한글 성경과 다수의 영어 성경이 이런 방식으로 번역한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 못지않게 두 개의 분사를 하나로 묶어 이해하고 첫 번째 여격 명사구(τῷ φόβῳ τοῦ κυρίου)까지를 첫 번째 문장으로 보는 견해도 상당한 설득력을 지녀서, 어떤 학자는 이러한 문장 구조 파악

이 가장 문자적인 이해라고 주장한다.²⁰⁾ 결국 문장 구조의 단순성과 간결성만 고려해서는 안 되며 다른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먼저 현재분사의 위치와 관련하여 문장의 구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3.1.2. 현재분사의 위치와 의미²¹⁾

이 구절에서 현재분사의 위치가 주목을 끈다. 보통 그리스어에서 분사가 부사적 용법으로 쓰일 때에 현재분사는 주동사와 동일한 시간의 동작을, 과거분사는 주동사보다 앞선 동작을 나타낸다.²²⁾ 그런데 그리스어의 현재분사는 보통 주동사 뒤에, 과거분사는 주동사 앞에 위치하며 그 경우에 과거분사는 주동사보다 앞선 동작을, 현재분사는 주동사와 동일한 시점의 동작이나 그 후의 동작을 나타낸다.²³⁾ 하지만 주동사가 미완료 과거일 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며 이때도 현재분사가 주동사 뒤에 나오는 경우가 여전히 많기는 하지만 현재분사가 주동사 앞이나 뒤에 나오는 비율은 서로 큰 차이가 없다. 그 이유는 미완료 과거가 과거 진행을 나타내기에 현재분사가 어느 위치에 놓이든 동일하게 진행 중인 동작을 표시해주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사도행전에서도 현재분사는 주동사 뒤에 위치하는 경우가 월등히 많으며, 특별히 주동사가 과거일 때 더욱 그렇다. 미완료 과거일

20) D. G. Peterson, *Acts*, 318. 그의 번역은 아래와 같다. ‘Then the church ... had peace, being strengthened and going in the fear of the Lord, and in the comfort of the Holy Spirit it multiplied.’ 이 번역에서 두 개의 분사는 첫 번째 동사에 종속된다. 이와 비슷하게 두 개의 분사를 함께 묶어서 봐야한다는 주장을 하는 다른 학자들이 있다. M. C. Parsons and M. M. Culy, *Acts*, 184; R. I. Pervo, *Acts* (Minneapolis: Fortress, 2008), 248. 파슨스와 켈리는 두 분사가 연결사 *καί*로 묶여 있으므로 함께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퍼보(R. I. Pervo)는 이 구절의 문장 구조와 관련하여 가장 단순한 해결책이 두 개의 분사를 두 개의 여격 구와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21) 그리스어 분사를 한글로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지 고민스러운 측면이 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유은결, “국역성경의 헬라어 분사구문처리에 대한 소고-『새번역』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25 (2009), 96-108을 보라.

22) 대부분의 그리스어 문법책에서는 분사의 시제가 부사적 용법으로 쓰일 때에, 주동사와의 상대적 시간 관계를 나타낸다고 설명한다. D. B. Wallace,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Grand Rapids: Baker, 1996), 624-626. 분사의 시간 개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는 B. M. Fanning, *Verbal Aspect in New Testament Greek* (Oxford: Clarendon, 1990), 406-416을 참조하라. 패닝(B. M. Fanning)은 그리스어 분사의 시제가 우선적으로 상(相, aspect)을 나타내지만 부차적으로 시간적 의미를 전달한다고 주장한다.

23) S. E. Porter, *Verbal Aspect of the Greek of the New Testament, with Reference to Tense and Mood* (New York; San Francisco: Peterlang, 1989), 380-381. 그리스어 분사의 시간 관계와 관련하여 분사의 시제보다 위치가 더 중요하다는 그의 주장은 통계적으로 보아도 설득력이 있다. 포터(S. E. Porter)는 그의 또 다른 책, *Idioms of the Greek New Testament*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4), 188에서도 분명하게 이런 주장을 개진한다.

때는 주동사 뒤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앞에 놓이는 경우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²⁴⁾ 따라서 현재분사의 위치가 문장 구조를 결정하는 데 어떤 의미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하며, 9:31에서도 현재분사의 위치가 문장 구조 분석에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해 주지는 않는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만일 과거 시제인 주동사 뒤에 현재분사가 나온다면 시간 순서상 뒤를 나타낼 수도 있는 반면에(대표적으로 17:13), 시제가 미완료 과거인 주동사 뒤에 현재분사가 나오면 언제나 주동사와 동시적인 행동을 표현해 준다. 주동사 앞에 나오는 경우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한글 성경처럼 번역하더라도 『개역개정』 등과 같이 ‘평안하여 (그 결과) 세워지는 것’으로 번역하기보다는 ‘세워지면서 평안을 소유하고 있었다’ 또는 ‘평안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세워져가고 있었다’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1.3. 두 개의 분사와 두 개의 여격 구의 관계

사도행전 9:31의 두 개의 여격 명사구는 함께 묶어서 한 쌍으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따로 떼어서 이해해야 하는가? 이 두 개는 누가의 문체를 고려할 때 함께 묶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만일 두 개의 여격 명사구를 별개의 것으로 나누어 표현하고자 했다면 또 다른 요약구절인 사도행전 16:5에서처럼 두 번째 여격 명사구를 두 번째 동사의 뒤에 위치시켰을 것이다.²⁵⁾ ἐπληθύνετο τῆ παρακλήσει τοῦ ἁγίου πνεύματος. 또한 2:42에서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는 여격 명사구를 일렬로 배치하는 누가의 문체도 이를 뒷받침해 준다.²⁶⁾ 게다가 9:31에서 두 개의 여격 명사는 소유격의 수식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수식하는 명사도 각각 ‘주님’과 ‘성령’이어서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표시해 준다.

이렇게 두 개의 명사구를 하나로 묶은 후에 두 개의 분사도 하나로 묶을 것인지 따로 떼어서 이해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에 가능성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1) ‘평화’까지를 한 문장으로 보고 중간삽표를 찍는 방

24) 18장까지 통계를 보면, 동사의 시제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보자면 주동사 앞에 현재분사가 오는 경우가 23번, 뒤일 때가 45번이며, 주동사가 과거일 경우에 앞에 오는 경우가 7개, 뒤는 17개이고, 주동사가 미완료 과거일 때 앞은 12개, 뒤는 17개이다. 이 통계에서 분사의 완곡(periphrastic) 용법(εἰμί 동사와 분사가 함께 쓰여 진행을 표현하는 경우)과 λέγω의 분사형은 제외시켰다.

25) 행 16:5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 Αἱ μὲν οὖν ἐκκλησίαι ἐστερεοῦντο τῇ πίστει καὶ ἐπερίσσειον τῷ ἀριθμῷ καθ' ἡμέραν.

26) 행 2:42의 원문은 이렇다: Ἦσαν δὲ προσκαρτεροῦντες τῇ διδαχῇ τῶν ἀποστόλων καὶ τῇ κοινωνίᾳ, τῇ κλάσει τοῦ ἄρτου καὶ ταῖς προσευχαῖς.

법. 2) ‘세워져 가고’까지를 한 문장으로 보고 나머지를 한 문장으로 보는 방법.²⁷⁾ 흥미롭게도 8:3에서 두 개의 현재분사가 두 개의 주동사와 한 개씩 연결되어 사용된다. 또한 9:31의 두 번째 동사는 또 다른 요약구절인 6:7; 12:24에 등장하며 다른 동사와 함께 쓰이면서 복음 전과의 상황을 묘사해 주는데 이때 연결사 *καί*로 두 문장이 연결되어 있다.²⁸⁾ 따라서 ‘평화’까지로 끊고 중간쉼표를 했을 가능성은 떨어지게 된다. 9:31에서 ‘평화를 소유하는 것’과 ‘수가 늘어나는 것’을 연결사 ‘그리고’(*καί*)로 연결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²⁹⁾ 그러므로 첫 번째 분사까지 한 문장으로 보는 것이 가장 개연성이 높은 문장의 구조다. 이에 따라서 이 문장의 대략적 번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면서 평화를 소유하고 있었고, 주님의 두려움과 성령의 위로/권면으로 진행하면서 수가 더 많아져 가고 있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주님의 두려움’과 ‘성령의 위로’에 해당하는 구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3.2. τῷ φόβῳ τοῦ κυρίου의 의미

*φόβος*는 기본적으로 두려움/경외, 무서움/공포를 의미하며 문맥에 따라 뉘앙스가 다른데, 하나님/예수님과 신자의 호의적인 관계를 위해 사용되면 ‘경외/두려움’을 나타낸다.³⁰⁾ 그런데 무엇보다도 소유격으로 되어 있는 *τοῦ κυρίου*의 의미 파악이 요구되어서, 이 소유격이 목적어적 소유격(objective genitive)인지 주어적 소유격(subjective genitive)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한글 성경은 예외 없이 목적어적 소유격으로 보아서 ‘주님을 경외함/두려워함’으로 번역하며 영어 성경은 거의 모두 문자적으로 ‘주님의 두려움’(the fear

27) CSB처럼 두 번째 동사 앞까지 한 문장으로 이해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문장의 불균형이 심각하므로 제외해야 한다.

28) 사도행전의 다른 간결한 요약구절을 보면 항상 명쾌하고 간명하게 묘사를 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당장 6:7이 그렇고 12:24; 16:5; 19:20; 28:30-31 등 다른 모든 구절들도 그렇다. 어떠한 경우에도 문장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두 개나 그 이상의 동사가 나올 때 접속사(대부분 *καί*, 소수의 *τέ*)를 넣어서 연결한다. 따라서 이 구절에서도 간명하게 의미를 드러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29) 사실 다른 요약구절에서도 접속사가 사용되며 중간쉼표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30) *φόβος*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서, 경외나 사랑을 품은 두려움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공포를 나타낼 수도 있다. 이 단어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정창욱, “누가복음-사도행전의 *φόβος*(‘두려움/무서움’)에 대한 이해와 번역”, 『성경원문연구』 35 (2014), 195-217을 보라. 현대인에게 하나님과 관련하여 ‘두려움’을 언급하는 것은 민감한 문제이며 따라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형원, “하나님 경외 사상의 다양한 의미에 근거한 *σέβω*의 한국어 번역 제안”, 『성경원문연구』 37 (2015), 7-29를 보라.

of the Lord)으로 번역하는데 이것은 원문의 함축적 의미를 잘 담아낸다.

그런데 누가-행전의 다른 부분에서는 이런 식으로 어떤 명사나 대명사의 소유격을 써서 이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없다. 신약의 다른 부분에서도 고린도후서 5:11에만 등장한다. 왜 여기서만 구체적으로 소유격 명사를 써서 이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것일까?³¹⁾ 아마도 두려움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표현하고자 했기 때문일 수 있다. 결국 소유격은 주체나 근원을 나타내는 소유격으로 ‘주님이 주시는(주님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하나님 중심적인 사도행전의 주제와 잘 부합하며,³²⁾ 같이 한 쌍을 이루는 ‘성령의 위로/훈계’라는 표현에서 소유격인 ‘성령의’가 주어적 소유격 혹은 근원의 소유격이기에 더욱 힘을 받는다.³³⁾ 결국 교회의 두려움의 근원은 하나님이며 두려움은 믿음과 관련이 있으면서 어떤 종합적 의미를 담고 있다.³⁴⁾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성장과 강성해짐에 있어서 두려움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서 드러난다(5절, 11절). 또한 2:43에서 사도들의 표적 행함을 보고 공동체의 성도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이 그려지며 그 결과 교회의 수를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47절).³⁵⁾ 이

31) 이 표현은 칠십인역에 종종 등장하는데 그 경우에도 ‘주님을 경외함’과 ‘주님이 주시는 경외함’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한다고 할 수 있다(대하 19:7). 특별히 시 19:9(=칠십인역 시 18:10)의 이 표현의 사용은 주목을 끈다: ὁ φόβος κυρίου ἀγνός διαμένων εἰς αἰῶνα αἰῶνος τὰ κρίματα κυρίου ἀληθινὰ δεδικαιωμένα ἐπὶ τὸ αὐτό. **the fear of the LORD is clean, enduring forever; the rules of the LORD are true, and righteous altogether. (ESV) ‘the rules of the Lord’**의 의미에 비추어볼 때 ‘fear of the Lord’는 ‘주님을 경외함’이라기보다는 ‘주님의 경외함’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어떻게 이 표현은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함축하고 있다. 그 외의 예들에서도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본문의 풍성한 의미를 담아낼 수 있다. 시 111:10(=칠십인역 110:10)의 경우에도 ‘주님의 두려움’으로 소유격을 근원의 소유격으로 볼 때 그 의미가 더 깊이 와 닿는다.

32) 사도행전의 하나님 중심성은 여러 군데에서 등장한다.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 선교하는 것을 꺼려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핍박을 주어서 퍼져가게 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중심인물은 인간 등장인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다. 사울의 회심도 성삼위 하나님의 주도적 개입의 결과다. 이러한 사도행전의 급진적 하나님 중심성(radical theocentricity)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지적하는데, 특별히 S. Walton, “Acts”, K. J. Vanhoozer, eds., *The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New Testament: A Book-by-Book Survey* (Grand Rapids: Baker, 2008), 81을 보라.

33) ‘성령의 위로’라는 표현에서 쓰인 소유격은 목적어적 소유격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아래에서 이루어진다.

34) οἰκοδομουμένη와 ἐπληθύνετο에 사용된 수동태는 신적 수동태로서 그렇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수가 늘어가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표현해 준다. E. Haenchen, *The Acts of the Apostles* (Philadelphia: Westminster John Knox, 1971), 333; D. L. Bock, *Acts*, 372.

35) 9:31의 용어들이 2:43-47의 용어들을 생각나게 해 준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J. Polhill, *Acts* (Nashville: Broadman, 1998), 244.

두 경우에 두려움의 대상은 애매하게 나타나서, ‘두려움이 생겼다’ 혹은 ‘두려움이 모든 사람에게 생겼다’는 식으로 표현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두려움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은연중에 드러내 주며, 이제 9:31은 두려움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혀 준다. 사실,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표현 보다는 ‘주님의 두려움’이 더 포괄적인 개념을 담고 있다. 5장에서 성도들에게 임한 두려움은 단순히 주님을 두려워하는 단편적인 것을 넘어 주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포괄적 두려움이였다. 주님은 단순히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의 근원이 되신다. 따라서 이 구절에서 교회 성장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포괄하는 주님이 근원이 되시는, 주님이 주시는 두려움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3. τῆ παρακλήσει τοῦ ἁγίου πνεύματος의 의미

3.3.1. παράκλησις의 의미³⁶⁾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위로/격려’ 혹은 ‘권면/훈계’이다.³⁷⁾ 이 명사가 사도행전 13:15에서 첫 번째 의미로 쓰이며, 15:31에서 두 번째 의미로 사용되어 사도행전에서 두 가지 뜻을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 명사의 동사형인 παρακαλέω는 ‘위로/격려하다’라는 의미보다는 ‘권면/요청하다’라는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며, 특별히 9:31과 인접한 8:31과 9:38에서 ‘권면/요청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따라서 이 명사는 최소한 한 가지 의미보다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³⁸⁾ 그렇게 되면 하나님

36) 앞서 언급한 대로, 바렛은 이 단어의 의미가 불분명(uncertain)하며 위로/격려나 훈계의 의미 둘 다를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C. K. Barrett, *Acts 1-14*, 474. 반면에 키너는 이 단어가 ‘위로’나 ‘격려’를 의미하며 결코 ‘훈계/권고’일 수 없다고 단언한다. C. S. Keener, *Acts*, 1696.

37) *BDAG*, 766. 이 명사의 의미가 무엇이나에 따라 앞의 ‘주님의 두려움’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표현의 의미에 미묘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만일 이 명사를 대부분의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처럼 ‘위로’(comfort)로 번역한다면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님의 위로로’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φόβος에서 무서움/두려움이 더 강조될 수도 있다. 무서움/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뒤에 성령의 위로를 넣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일 뒤의 명사를 성령의 ‘훈계/권고’(exhortation)로 번역한다면 앞의 명사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볼 수 있다. 공포나 떨림보다는 예수님/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에서 오는 경외의 마음으로 사는 가운데 성령님의 권면/훈계를 통해 교회가 성장해 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38) 어떤 학자는 이 단어의 의미가 ‘위로’나 ‘핍박 후의 보호’가 아니라 ‘권면/훈계’라고 단언한다. W. J. Larkin Jr., *Acts*, IVP New Testament Commentary Series (Downers Grove: Intervarsity, 1995), 148. 또한 D. J. Williams, *Acts* (Peabody: Hendrickson, 1990), 178을 보라. 어떤 학자는 ‘위로’나 ‘권면’을 모두 나타낼 수 있다고 본다. J. A. Fitzmyer, *The Acts of the*

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갈 길을 보여주시는 ‘훈계’와 ‘권고’가 필요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예수님을 두려워하며 어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생겨날 수 있는 위축감을 성령께서 오셔서 위로와 격려로 없애 주시고 힘을 내도록 북돋아 주신다고 설명해 볼 수 있다. 결국, 이 단어의 사용은 두 측면을 함께 나타내기 위한 장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근접 문맥에 위치한 10장의 고넬료 회심 사건의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설득력을 얻는다.³⁹⁾ 순수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가서 함께 식탁 교제를 하고 전도하기를 꺼리던 베드로에게 성령은 직접 말씀으로 권면/훈계 하신다(19-20절). 성령의 권면/훈계가 주어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근접 문맥인 9:31에 사용된 παρακλήσις는 ‘권면’이나 ‘훈계’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며, 최소한도 ‘위로’나 ‘격려’와 더불어 이런 의미도 담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번역할 때에 이 점을 고려하여 본문에 한 단어를 선택하고 각 주나 난하주에 다른 단어를 표기할 필요성이 있다. 그 어느 영어 성경도 이 단어를 사도행전 9:31에서 ‘권면’이나 ‘훈계’를 의미하는 ‘exhortation’으로 번역하지 않고 ‘comfort’나 ‘encouragement’로 표현하며, 독일어 성경도 ‘Trost’(위로), ‘Ermutigung’(격려: MNT), ‘Beistand’(후원: SCL[Schlachter Bibel], ZUR)로 이해한다. 한글의 경우에도 『개역개정』은 ‘위로’로 번역한 후에 어떤 영문에서인지 비슷한 의미인 ‘후원’을 난하주에 표기하는데 아예 ‘훈계’ 혹은 ‘권면’으로 난하주에 표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 그리스어 명사와 동사형이 등장하는 사도행전 15:31-32에서 『개역개정』은 31절의 경우에는 본문에 ‘위로’라고 하고 난하주에 ‘권면’을 놓으며 32절에서는 반대로 본문에 ‘권면’을 놓고 난하주에 ‘위로’라고 해 놓았다. 그렇다면 9:31에서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해도 좋을 것이다.

3.3.2. 소유격 τοῦ ἁγίου πνεύματος의 기능

여기서 사용된 소유격 명사는 첫 번째 여격 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어적 소유격으로 볼 수도 있고 목적어를 나타내는 소유격으로 해석할 수도

Apostles (New Haven: Yale University, 1998), 441. 피츠마이어(J. A. Fitzmyer)는 ‘평화’에서 문장을 끊고 두 개의 분사를 독립된 두 개의 문장으로 함께 묶으면서 ‘주님의 두려움’만을 두 개의 분사에 딸린 것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성령의 위로’를 두 번째 동사와 연결하여 번역한다. J. A. Fitzmyer, *Acts*, 443.

39) 10:4에 따르면 고넬료에게 주의 사자가 찾아왔을 때 ‘두려움/공포’에 그가 사로잡혔는데 이때 φόβος의 형용사형인 ἔμφοβος가 사용된다. 주님을 두려워했다기보다는 포괄적인 공포와 두려움이었고 따라서 주님 때문에 생긴 두려움을 표현해 주어서, 9:31과의 연관성을 드러낸다.

있다. 앞서 설명한대로 παρακλήσις의 동사형은 ‘요청하다/간청하다’는 의미로 더 자주 사용되는데, 그렇게 보게 되면 이 표현은 ‘성령님을 부르는(성령께 간청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전달한다.⁴⁰⁾ 이러한 해석은 문법적으로 가능한데, 특별히 여격 구문의 첫 번째 표현 τῷ φόβῳ τοῦ κυρίου에서 소유격을 목적어적 소유격으로 해석할 경우에 더욱 가능성이 커진다. 곧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을 권고함(성령의 인도를 호소함)’을 통해 교회가 성장했다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첫 번째와는 달리 두 번째 소유격을 목적어적 소유격으로 보게 되면 의미가 어색하여 너무 많은 설명이 들어 가야하기 때문에 주어적 소유격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 게다가 첫 번째 소유격도 주어적 소유격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따라서 두 번째 소유격도 주어적 소유격으로 쓰였을 개연성이 높다.

3.4. 두 여격 명사구의 번역

영어 성경은 원어의 소유격의 의미를 감안하여 두 여격 명사구에 ‘of’를 넣어 처리하여 원문의 함축적 의미를 잘 담아낸다. 그런데 한글의 특성상 영어처럼 표현할 수가 없어서 한글 성경은 ‘주님을 경외함/두려워함과 성령의 위로로’라고 번역한다. 하지만 한글 성경의 번역은 그리스어 소유격의 함축적 의미를 담아내지 못하여 아쉽다. 본문에 이런 내용을 집어넣기 어렵다면 각주나 난하주에라도 이런 번역을 제시하여 원문의 풍성한 의미를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병행을 이루는 두 표현이 함께 붙어서 쓰이기 때문에 소유격 명사의 용법이 동일한 것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⁴¹⁾ 그런데 앞서 살펴본 대로 두 개의 소유격 모두 주격으로 쓰였을 개연성이 더 높다. 따라서 이 두 구문은 이러한 의미를 전달한다: ‘주님의 두려움과 성령의 위로/훈계로.’ 이렇게 되면, 두려움도 성삼위 중 한 분이신 하나님/예수님이 주시는 것이고 위로도 성삼위 중 한 분이신 성령께서 주

40) F. F. Bruce, *The Acts of the Apostles: Greek Text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3rd rev. and enl. ed. (Grand Rapids, Mich.: W. B. Eerdmans, 1990), 246. 영어로 그는 이렇게 표현한다: the invoking His guidance as Paraclete to Ecclesia.

41) 이것은 함께 사용된 여격 명사들(τῷ φόβῳ와 τῇ παρακλήσει)의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두 표현에 사용된 여격은 동일한 용법으로 쓰여서 동일한 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 영어로 말하면 ‘in’이고 한글로 하면 ‘...으로’가 되는데 이것은 ‘수단의 여격’으로 사용되었다. 바렛은 이 여격과 관련하여 BDF에 있는 내용을 소개하는데, 요지는 이렇게 동사(πορεύομαι)가 은유적 의미(문자적 의미인 ‘걷다’가 아니라 ‘살아가다’)로 사용될 경우에 고전 그리스어에서는 여격이 아니라 목적격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C. K. Battett, *Acts 1-14*, 474. 하지만, 여기서 여격은 ‘수단’의 여격으로 봐야 한다.

시는 것이 된다.⁴²⁾ 이것이 마땅치 않다면 조금 풀어서 ‘주님이 주시는 두려움과 성령이 주시는 위로/권면’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인데, 특별히 원문의 구조보다는 의미를 통하게 하는 데 역점을 두는 한글 성경들(『표준』, 『공동』, 『성경』 등)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또한 『개역개정』의 경우도 사도행전 15:31-32에서 한 것처럼 최소한 난하주에라도 이런 의미를 삽입할 필요성이 있다.

4. 결론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1) 두 개의 분사, οἰκοδομουμένη와 πορευομένη는 서로 떼어서 각각 첫 번째 주동사와 두 번째 주동사와 연결하여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따라서 9:31의 두 개의 문장은 첫 번째 분사까지 한 문장으로 보고 그 뒷부분을 한 문장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이때 첫 번째 분사는 첫 번째 주동사와 동시에 진행되는 동작을 표시함으로 그런 이해를 반영하여 번역해야 한다.

2) παρακλήσις의 의미와 관련하여 이 구절 이후의 문맥을 고려해 볼 때에, ‘위로’보다는 오히려 ‘권면/권면’라는 의미를 전달하며, 최소한도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이런 의미를 반영하여 번역이 이루어져야 한다.

3) 후반부의 두 개의 여격 명사구, τῷ φόβῳ τοῦ κυρίου와 τῇ παρακλήσει τοῦ ἁγίου πνεύματος는 하나로 묶어서 이해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문체와 이 부분의 문장 구조를 고려할 때 개연성이 높다. 또한 두 개의 여격 구의 번역에서 원문을 반영하여 ‘주님의 두려움과 성령의 위로/권면’이라는 원래 의미를 살리는 해석이 요구된다. 이때에 두 개의 소유격 모두 주어적 소유격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글의 특성상 표현하기 어렵다면

42) 사도행전에서 ‘주님’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곤 한다. 앞의 각주 5번에서 지적한 대로, 이 구절에서도 ‘주님’이 하나님을 지칭하는지 예수님을 지칭하는지에 대해서 학자들은 의견이 나누어지는데, 두 분 다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주 5의 학자들에 덧붙여보자면, 칼빈(J. Calvin)은 단적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이해한다. J. Calvin, *Acts*, A. McGrath and J. I. Packer eds. (Wheaton: Crossway Books, 1995), 161.

본문에 풀어서 제시하고 각주에 설명을 하는 방식을 고려해 봐야 한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기반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사도행전 9:31의 번역을 제시해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온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면서 평화를 소유하고 있었고, 주님이 주시는 두려움(난하주: 주님을 두려워함. 그, 주님의 두려움)과 성령이 주시는 권면(난하주: 위로 또는 훈계)으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져 가고 있었다.

<주제어> (Keywords)

사도행전 9:31, 주님의 경외, 성령의 위로/훈계, 그리스어 현재분사, 소유격의 용법.

Acts 9:31, fear of the Lord, comfort/exhortation of the Holy Spirit, Greek present participle, Usage of the Greek genitive.

(투고 일자: 2019년 1월 31일, 심사 일자: 2019년 2월 25일, 게재 확정 일자: 2019년 4월 23일)

<참고문헌>(References)

- 유은결, “국역성서의 헬라어 분사구문 처리에 관한 소고”, 「성경원문연구」 25 (2009), 96-108.
- 이형원, “하나님 경외 사상의 다양한 의미에 근거한 ἄγος의 한국어 번역 제안”, 「성경원문연구」 37 (2015), 7-29.
- 정창욱, “누가복음-사도행전의 φόβος(‘두려움/무서움’)에 대한 이해와 번역”, 「성경원문연구」 35 (2014), 195-217.
- Barrett, C. K., *The Acts of the Apostles v.1: Acts 1-14*, London; New York: T.&T. Clark, 1994.
- Bock, D. L., *Acts*, Grand Rapids: Baker, 2007.
- Bruce, F. F., *The Acts of the Apostles: Greek Text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3rd rev. and enl. ed., Grand Rapids, Mich.: W. B. Eerdmans, 1990.
- Calvin, J., *Acts*, A. McGrath and J. I. Packer, eds., Wheaton: Crossway Books, 1995.
- Fanning, B. M., *Verbal Aspect in New Testament Greek*, Oxford: Clarendon, 1990.
- Fitzmyer, J. A., *The Acts of the Apostles*, New Haven: Yale University, 1998.
- Haenchen, E., *The Acts of the Apostles*, Philadelphia: Westminster John Knox, 1971.
- Johnson, L. T., *Acts*, Collegeville: Liturgical, 1992.
- Keener, C. S., *Acts: An Exegetical Commentary 3:1-14:28*, Grand Rapids: Baker, 2013.
- Larkin, Jr., W. J., *Acts*, IVP New Testament Commentary Series, Downers Grove: InterVarsity, 1995.
- Le Cornu, H. and Shulam, J., *A Commentary on the Jewish Roots of Acts*, Jerusalem: Netivyah Bible Instruction Ministry, 2003.
- Marshall, I. H., *The Acts of the Apostles*. Grand Rapids: Eerdmans, 1992.
- Parsons, M. C. and Culy, M. M., *Acts: A Handbook on the Greek Text*, Waco: Baylor University Press, 2003.
- Pervo, R. I., *Acts*, Minneapolis: Fortress, 2008.
- Peterson, D. G., *The Acts of the Apostles*, Grand Rapids: Eerdmans, 2009.
- Polhill, J., *Acts*, Nashville: Broadman, 1998.
- Porter, S. E., *Idioms of the Greek New Testament*,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4.
- Porter, S. E., *Verbal Aspect of the Greek of the New Testament, with Reference to Tense and Mood*, New York/San Francisco: Peter Lang, 1989.
- Rius-Camps, J. and Read-Heimerdinger, J., *The Message of Acts in Codex Bezae: A*

Comparison with the Alexandrian Tradition, London; New York: T. & T. Clark, 2007.

Wallace, D. B.,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Grand Rapids: Baker, 1996.

Walton, S., "Acts", K. J. Vanhoozer, eds., *The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New Testament: A Book-by-Book Survey*, Grand Rapids: Baker, 2008.

Williams, D. J., *Acts*, Peabody: Hendrickson, 1990.

<Abstract>

Translation of the Main Summary Statement in Acts 9:31

Chang Wook Jung
(Chongshin University)

The summary statement in Acts 9:31 as variously translated by English Bible versions reflects the complicated nature of the sentences in the verse. The crucial issue centers on the proper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 between two main verbs and two participles. All Korean versions of the Bible construe the first and second participles as being connected to the first and second main verbs respectively. In contrast, the translation of English versions varies from version to version, which indicates the complexity of the sentences in Acts 9:31. Considering the grammatical elements and the Greek style of other summary editorial notes in Acts, the translation of Korean versions is preferable.

Another issue arises concerning the precise meaning of the Greek word *παρακλήσις* which all Korean and English versions interpret as conveying ‘comfort’ or ‘encouragement’, though it may also denote ‘exhortation.’ Remarkably, the Holy Spirit exhorts Peter to go to Caesarea Philippi with people sent by Cornelius in the episode of the conversion of Cornelius in Acts ch. 10. As a result, the noun has to be understood as delivering at least a double connotation, i.e., ‘comfort’ and ‘exhortation’; the church should receive not only the comfort but also the exhortation/guidance of the Holy Spirit.

The last problem revolves around the usage of the genitive concerning the two expressions, *τῷ φόβῳ τοῦ κυρίου* and *τῇ παρακλήσει τοῦ ἁγίου πνεύματος*. The genitive case may function as the subjective genitive or the objective genitive, resulting into two different meanings, especially for the first expression: ‘the fear of the Lord’ or ‘fearing the Lord’. Intriguingly, all Korean versions of the Bible include the second expression ‘fearing the Lord,’ which ignores the structure of the Greek text and its connotation. The expression ‘the fear of the Lord’ indicates a more inclusive concept of fear, which originates from the Lord or which the Lord gives. Both the first and the second genitives probably function more as the subjective genitive than the objective genitive in this verse.

As the result, the locution τῷ φόβῳ τοῦ κυρίου and τῇ παρακλήσει τοῦ ἁγίου πνεύματος needs to be interpreted as ‘the fear of the Lord and the exhortation/comfort of the Lord’.